

# 13억 울린 그 곳, 중국에서 정율성음악축제



광주문화재단, 11~12일 후난성 창사시  
**정율성 대표작 '심원춘-장사' 탄생한 곳**  
 광주 국악관현악·무용... 中 무술춤·합창  
 학술포럼·亞문화전당 홍보 미디어아트쇼

13억 중국인의 가슴을 울린 광주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 정율성의 예술혼을 기리는 '2015년 정율성음악축제'가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시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무용예술단, 봉산초등학교 소리나무 중창단 등 방문 공연단 90여명과 함께 중국 후난성 성도 창사시에서 '2015년 정율성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2015년 정율성 음악축제' 개최장소를 작곡가 정율성의 대표작 '심원춘-장사' 탄생 배경인 후난성 창사시로 정했다.

창사시는 후난성의 성도이며 총인구 715만명, 행정·교통·문화의 중심지로 양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후난대 공자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하며, 11일 정율성음악축제와 12일 정율성국제학술포럼 등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1500석 규모의 '중국 창사시 후난대극원'에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무용예술단, 봉산초등학교 소리나무 중창단성악가 등 출연자 74명과 함께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공연될 작품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광복)의 호남지방 농민들이 밭을 갈다가 부러던 들노래를 편곡하여 팽과리 소리 의성이 '갬지깡 개깡' 소리를 제목으로 정한 '춤 위한 갬지깡' 등이다.

'소리&무용예술단'의 축하의 의미를 담은 경쾌한 무용곡 '축연무'와 '남도민요' 공연, 사물놀이 등을 선보인다. 또한, 봉산초등학교 소리나무 중창단과 성악가 등이 한 무대에 올라 정율성 작곡 동요 '평화의 비둘기'와 가곡 '연안송' '연날리기' 등을 공연한다.

또 중국 측에서도 중국공연단 '창사시 빼꾸기 예술단'이 무술춤 '중국공부' 공연과 중국합창단이 정율성 작곡 '진야를 기다리며'와 모택동의 시에 곡을 붙인 '무산관' 무대를 통해 한중화합의 아름다운 밤을 연출하게 된다.

이날 공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소개하는 미디어 영상 작품을 통해 문화중심도시이자 유네스코창의도시 미디어아트시티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쇼도 펼쳐진다. 정율성의 음악적 성과를 진단하는 학술포럼도

결정여진다. '정율성 국제학술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중국 창사시 후난대 국제교육학원에서 한국 7명, 중국 5명 총 12명의 발표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이정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을 좌장으로 '항일전사 정율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고, 제2부는 중국 담당자의 진행으로 '정율성의 음악세계'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제1부 '항일전사 정율성'을 주제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이 '중국 항일통일전선운동과 군사투쟁 시기의 정율성 활동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이건설 전남일보 편집국장 '정율성 옹형제의 중국 관내 항일운동', 중국음악 전문가인 이예련 씨의 '정율성 음악 속에 나타나는 한국적인 요소' 발표 등을 통해 정율성의 삶과 그의 음악 속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정율성의 음악세계'를 주제로 중국의 어경진 중국음악평론 학술이사가 '정율성 선생이 중국음악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다. 또 주악봉 후남성 음악가협회 회장이 '정율성 합창 작품연구'를 발표하는 등 정율성의 음악에 담긴 의미성과 그의 음악이 중국에 준 영향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올해 11회째 맞는 정율성축제는 매해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한중예술단 상호 교류 공연, 정율성 작품연주회, 사진전, 학술세미나, 거리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중국 베이징, 상하이, 하얼빈, 허난성 등에서 진행해 왔다. 문의 062-670-746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 의료지원단 빛고을음악회...내일 금호아트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12년 구성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의료인 지원단(단장 주영화 학문외과 원장·이하 의료 지원단) 역시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인 지원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약 7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회 기간 중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홍보를 위해 '빛고을 음악회'를 열었던 의료지원단이 개막 한달여를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제2회 빛고을음악회를 개최한다. 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은 전문 연주단체인 (사)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주관했다. 음악회 서막은 모리스 플루트 앙상블이 연다. 비제의 '카르멘' 도입부를 시작으로 요한

슈트라우스의 '푸른 다뉴브 왈츠', 스킵 조플린의 '레그타임'을 들려준다.

이어 협연의 '두 대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현악 트리오'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10'이 공연된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첼바로 연주곡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비발디의 협주곡 '조화의 영감' 중 '두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a단조', '네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b단조'가 연주된다.

성악가들의 무대도 이어진다. 소프라노 이승희씨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를, 테너 김주완씨가 '그라나다'를 선사한다.

출연진은 바이올리니스트 문종아·박기리·채송화·이보라, 첼리스트 윤소희·김황균, 피아니스트 정소운, 첼바로 연주자 남선영씨 등이다. 문의 010-2422-50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4년 정율성 음악축제의 한 장면.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수상작 전시회

### 국립광주박물관 9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주최한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백제 금동관모'(사진)를 그린 송원초 조민수 학생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초등학생 751명이 참가했으며 대상 1명을 비롯해 최우수상(6), 우수상(15), 가작(36), 특선(22), 입선(64) 등 144명이며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김종일 전남대 명예교수는 "선정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표현기법이 다양해지고 세련된 기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9일부터 8월23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어린이문화재 그림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70-7017. /김경민기자 kki@

## 멸종위기 동물들 “도와줘, 꼬마타잔”



오윤수 작 '북극곰'

### 광주시립미술관, 8월 1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8월16일까지 본관 어린이갤러리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소재로 '도와줘, 꼬마타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사냥 등으로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그림과 조각,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멸종 위기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참여 작가는 김일근(연어), 김정민(코벨소), 오윤수(북극곰), 정찬부(도롱뇽), 홍상카이(기린, 코벨소, 코끼리, 고릴라), 아트주(개 의자), 자연영아트(멸종위기 동물 20여종) 등이다.

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멸종 위기 종 영상을 제공, 멸종 위기 종 동물들을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감상과 함께 동물 관련 관찰지를 작성해 동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동물들에게 간단한 메모를 작성해 전시 중인 코벨소의 몸에 붙이는 이벤트로 진행한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

## 가뭇에 타는 농심 “물 좀 주소”

### ‘나비아 공동가자’ 오늘 예술의 거리 공연·체험

매주 금요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동예술한지 '나비아 공동가자'가 5일 오후 3시30분부터 펼쳐진다.

이번 주 주제는 '물 좀 주소'로, 가뭄으로 인해 타들어가는 농심과 식수 걱정으로 허덕이는 지구촌을 작가의 시각에서 예술로 표현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수채화 퍼포먼스를 비롯해 라틴댄

스, 재즈 보컬 등 21개 공연과 민화 그리기, 캐리커처, 석고 손도장만들기, 플라워아트 체험을 비롯한 38개의 예술체험이 예술의 거리 한복판에서 진행된다.

공동예술한지는 민화 그리기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문의 062-223-0137. /김경민기자 kki@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